

# 불교TV 3차주식 60억 공모

## 12월1일부터 불자 1주갯기운동 추진...청약한도 없애

불교TV(사장 태웅스님)가 내달 1일부터 제3차 주식공모를 실시한다.

불교TV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7층회의실에서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차 주식공모를 실시하여 1백20만주 60억원을 공모키로 했다.

내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실시될 3차 주식공모의 1주당 가격은 5천원이며 최저청약한도는 20주(10만원)다. 그간 2억원으로 한정됐었던 최고 청약한도를 이번 주식공모에서는 없앴다.

이와함께 불교TV는 주식공모 기간 3달동안 '불자 1주 갯기운동'과 '시청자 확보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각 SX지역방송국에 부여되는 채널선택권제도로 시청률이 저조한 공공사의 방송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불교TV는 각 종단 및 사찰 단체를 직접 찾아 다니며 주

공모와 불교TV 시청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미 두차례의 주식공모를 통해 1백55억의 자본금과 1만 8천명의 주주를 확보한 불교TV는 이번 주식공모 예상액이 확보되면 97년부터는 경영의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역방송국을 현재의 53개에서 115개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시청인구를 늘리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관리국 이호국장은 3차 주식공모를 앞두고 "막대한자금이 소요되는 불교영상포교의 미래를 위해 불자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97년도까지는 불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불교방송이 '미국속 한국불교' (유병직, 이영준PD) 시리즈 3편과 공개방송 '샌프란시스코 교민과 함께' 등 4개프로를 현지에서 제작한다.

BBS가 준비 중인 초창법회 '무애사상 생명사상'은 LA금강사 대정스님으로부터 미국속에서 한국불교의 정신을 통해 인종의 벽, 종교의 벽, 이념의 벽을 허무는 방법을 듣는 시간이다. 특별과목 '정법교의 새날을 연다'에서는 불법홍포를 위해 교포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교국의 불교계에 바라는 제언 그리고 교포사회에 불교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이



### BBS '미국속 한국불교' 제작

초창법회·휴먼다큐등 4개프로 제작팀 내달 2~11일 현지녹음

프로는 한인불자와 미국인불자들의 '초발심 그릇'을 인서트로 꾸며 소개할 예정이다. 진행은 미주불교방송 유인무 보도국장이 맡는다.

휴먼다큐멘터리 'LA보현보살 제암스님의 도반만들기'는 LA형사반장이며 교포 2세불자인 마기영씨의 신행을 소개한

다.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와 인연맺은 마기영씨는 지난해 난생처음 한국을 방문하고 선대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었음을 알고 놀란다.

불교가 미국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찌어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불교지원사회 '보현회'를 조직하여 도반맺기에 바쁜 그를 만난다. 또 내달 9일 샌프란시스코 데이비드 심포니홀에서 교포위안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교민과 함께' 공개방송도 마련한다. 제작팀은 다음달 2일~11일까지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영>

### 지구촌 불교

#### '불교는 내면관조 실천사상' 강조 '미국여성 눈에 비친...' 서 동양적수행 권장

20세기를 살아가는 미국 여성이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을 기록한 책이 출간됐다.

1989년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여성기도모임'에 참가한 미국여성불자들의 논쟁을 각자의 주제로 선정하여 편집한 (미국여성의 눈에 비친 불교) (Buddhism Through American Women's Eyes)에서 편저자 아야케마(Ayaka Kama)는 "미국문화와 불교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미국여성불자들의 삶이 기독교 계급 사회 속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진리(Dharma)를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서술하

고 있다고 말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미국여성불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종장에 이르러 아야케마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논쟁의 기저에 깔린 궁극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12장 '수도생활의 경험' (The Monastic Experience)에서 아야케마는 미국여성불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경험을 찾기 보다는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불교에 귀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동양의 수행으로써 실천할 것을 권장했다.

#### 일화스님 법륜종 2세종정 취임

법륜종 제2세 종정에 일화스님이 취임했다.

법륜종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리베라호텔 대회의장에서 각 종단 스님 및 문도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 취임식을 성황리에 봉행했다.

이날 신임종정 일화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정들이 애종심을 가지고 위상강화와 전법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화스님은 1940년 공주 마

곡사에서 금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태고종 중앙총회위원·총남총무원장등을 거쳐 법륜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진각회관 상량식 봉행

진각회(총리위원장 락해정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대구 대봉동 소재 진각회관 3층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

진각 사업부장, 쌍용건설 김성호 이사를 비롯 종단 간부



법륜종 2세 종정 일화스님의 취임법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조계종 내년 예산이 역사상 최초로 1백억을 넘어섰다. 불과 2년전인 1994년도 예산이 3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라 아날 수 없다.

예산의 4분의 1기인 21%가 종책사업에 책정됐다. 종단 차원에서 적극 밀어줘야 할 공책사업에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종단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예산액만 보더라도 종단 운영은 이제 소풍장난처럼 주먹구구식은 될 수조차 없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종단발전을 위한 갖가지 사

업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잘 짜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뒷받침해줄 수입이 따라주어야만 일이 잘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내년 분담금예상 수입이 6억, 예산의 반이상이 분담금 수입으로 잡혀 있다. 과연 이렇게 예정된 분담금이 제때 로선 불안하다.

10월31일 현재 올해 분담금의 납입율은 일반분담금이 68%, 관할로 분담금이 53%, 특별분담금은 47%이다. 이 셋

#### 태고종 새스님 108명 탄생

태고종의 미래를 짊어질 새 스님 1백8명이 탄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19회 합동수계산림을 개설해 사미 81명, 사미니 27명 등 모두 1백8명의 스님에게 사미(니)계를 수계했다.

이날 수계산림은 종정 덕암스님을 교수사로, 총무원장 서봉

#### 내년 24개사업 확정

내년 24개사업 확정

태고종 21일 중앙이사회 (사)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이사회(이사장 서봉스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갖고 96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확정된 96년 사업계획은 △동방불교대 각종 학교인가 추진 등 24건이다.

한편 이날 확정된 96년도 사업계획안은 오는 28·2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제7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 '니르바나' 세계불자 이해 제각각 인터넷 '변하는 말-용어사전' 코너에 등장

인터넷의 세계불자들은 니르바나(nirvana, 열반)를 매우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

'위험한 환상이지만 자유로운 실체다' '그것은 참나의 깨달음이다' '단지 기다리고 준비할 뿐이지 그것을 위해 투쟁하지는 않는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한 의혹을 그만두는 일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트리샤이클(TriCycle)의 '변하는 말-용어사전' 코너에는 니르바나에 대한 이갈이 다양한 개인적 정의가 등장하고 있다.

트리샤이클에 새로 마련된 '변하는 말-용어사전' 코너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불교적인 가르침과 각기 다른 문화와 이해하기 좋은 코너다.

#### "일은 전쟁피해국가에 배상해야" 니와노 평화재단 세미나서 日종교인 주장

일본의 니와노(能野)평화재단은 지난 16일 동경의 입정교성회 강당에서 '전후 50년, 남겨진 과제와 종교자의 역할-아시아의 전후문제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후 50주년을 맞는

오늘날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아시아 전쟁피해자를 위한 보상문제 등 전후문제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교환됐다. 신일본종교단체연합회의 미즈노씨는 일본을 가해자로 간주 '일본이 아시아피해국가에게 배상 문제를 포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1백억 예산과 분담금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3일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 종광스님은 사찰 관할로의 공공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늘 들어오는 관할료로 인해 포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에 신도관리를 사찰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

#### 다섯 가지 불교의 수

다섯 가지 불교의 수

다섯 가지 불교의 수

#### 대구BBS 소식지 발간

불교대구방송추진위는 지난 11일 추진현황을 담은 소식지 '불교방송' 창간준비호를 발행했다.

20쪽 분량의 이 소식지는 격월간으로 발행되며 방송국설립성금모금 내역을 소상히 공개했으며, 또한 지난 5월 29일 개국하기 이후 추진현황 및 경과 보고, 대구방송 설립의 등을 실었다.

#### 보리방송 문화대상에 HBS '인간기행-보리편'

보리방송문화상 운영위원회는 제3회 보리방송문화상 대상에 TV부문은 HBS 현대방송의 '인간기행-보리편' (조재훈PD)과 라디오부문은 BBS '고승열전' (박용기위원)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청주MBC '직지' (남은성PD), BBS '사라진 개화승 이몽인' (김경학, 유진화PD)를 선정했다. 대상작인 '인간기행-보리편'은 지리산 한 암자 비구니스님 손에서 자라는 여섯살 동자승의 일상을 꾸민 휴먼드라마다. 시상식은 내달 1일 오후 4시 부산 코모도호텔 중무홀,



달초 촬영을 마치고 내년 2월 24일 개봉될 전망이다. '유리'는 박성용씨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영화화한 것으로 기존의 종교영화가 화해나 사랑 혹은 선의 방법으로 종교적 메시지를 보여왔던 반면 종편대결의 수행으로 삼의 변민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 일타큰스님께서서 피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권판 / 5,000원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큰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입법도 불지법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안을 바꾼 길로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알려주자,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응보담 / IV. 속성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승운한 전생담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권판 / 4,500원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톺아볼 수 있다. 신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경>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경>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신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큰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부처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의사와 실천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평심하여 마음자리 부침을 회복하고 행복이 닥칠 당길 자제로써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 5,000원

법포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동심요리      전화 : (02) 587-6612 · 3      팩스 : (02) 586-9078